

<서평>

제주의 바다

- 고유봉 외, 『제주의 바다』(1998, 제주도수산해양개발협의회) -

이진환*

제주주변 해역은 황해, 남해 그리고 동중국해를 포함하고 있고 구로시오 해류의 지류인 대마 난류수의 길목으로서 황해 저층수, 남해 연안수, 중국 양자강수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해황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일찍이 주목을 받아 왔다. “濟州의 바다”는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들이 그간의 연구성과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또 하나의 우리나라 지역해양학의 업적을 남긴 역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구성은 물리해양학, 화학해양학, 생물해양학, 지질해양학등 전통적인 해양학의 분야로 각각의 장을 구성하고 있다. 즉, 제주도의 해양환경 전반을 다룬 책으로 연안의 수괴분포, 해양환경 일반, 해양오염, 해역별 수질관리 및 수질측정망 운영, 해양식물, 해양동물, 해저지질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저자들의 전공을 최대한 살렸을 뿐만 아니라 현장채집과 관찰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표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작이 나오기까지 대표적인 역할을 한 고유봉 교수를 잠깐 소개하면 필자가 오래 전 부터 주목해 온 우리나라 생물해양학의 선구자적 위치에 있는 대표적인 과학자중에 한 분이다. 그는 제주대학교에서 수산해양학을 전공하고 동경대학 해양연구소에서 해양생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모교에 재직하면서 해양학과를 창설하여 탁월한 리더쉽으로 학문 뿐만 아니라 대학내 발전과

* 상명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해온 분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러한 저술의 기획하고 펴내는데 그의 저자들의 호응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지로 이 책은 고유봉교수가 처음으로 조직한 산학연 협동기관인 제주도 수산해양개발협의회에 발간한 첫번째 학문적 성과이자 제주도 수산 및 해양관계자들을 위한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그 밖의 저자들도 제주도 해양학의 각 분야에서 적게는 십여년 많게는 30여년을 종사한 연구자들로 이 책의 신뢰성에 더 할 나위 없는 저자들이라고 믿고 있다. 옥에 티라면 생물해양학 분야에서 부유 생물학만의 연구결과를 다룬 것인데 나머지 유영생물과 저서생물은 제주도 수산생물에 대한 별도의 책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니 한번 더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이 책은 약간 전문적인 면도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도 있지만 수산 및 해양관계자나 해양을 연구하는 전문인들에게 제주도의 바다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역작이라고 확신하며, 가장 최근에 출간된 지역해양학적 연구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의 저자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더 좋은 연구를 하여 제주도 지역해양학의 업적이 세계적인 해양학의 업적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